

내년 국가예산 확보 구슬땀

정현을 익산시장, 백재현 예결위원장 과 면담

주요 현안사업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익산시(시장 정현을)가 지역 주요 사업의 내년 국가예산이 국회단계에서 증액될 수 있도록 힘을 쏟고 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지난 3일 국회를 방문해 백재현 예결위원장과 안호영 예결위원을 각각 면담하고, 시 주요 현안사업의 2018년 국가예산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정 시장은 새만금 수질과 악취 개선을 위한 △익산 왕궁 현업축사 매입 및 생태복원사업(389억),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국가식품클러스터 1단계 조성사업(177억), 세계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꼭 필요한 △익산 고도보존 육성사업(74억), 하수처리장 운영비 절감과 공정개선을 위한 △하수처리장 감량화 사업(45억), 우리시 향토산업인 △키금

속보석 클러스터 조성사업(29억) 등의 내년 국가예산이 국회단계에서 증액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지역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이 예결위 심의에서 증액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본격적인 상임위 및 예결위 심의가 진행되는 이날 내내 지역에 연고를 둔 국회 예결위 위원들을 차례로 방문하여 적극적인 국가예산 확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익산=정양원기자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 창업지원단이 지난 2일 '2017년 대학생 창업경진대회'를 교내 캠퍼스에서 개최했다. 시상식에서는 최우수상 라이프프러셔팀, 우수상 에니모아스팀 외 1개 팀, 장려상 구석기팀 외 2개 팀에 대한 시상도 이루어졌다.

원광대 창업지원단, 대학생 창업경진대회 개최

스마트 스위치 아이디어 제시 UNL팀 전북도지사상 수상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 창업지원단이 지난 2일 '2017년 대학생 창업경진대회'를 교내 캠퍼스에서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원광대 창업지원단에서 주관한 이번 경진대회는 전북도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이 주최했으며, 대학생들의 창업에 대한 관심과 분위기를 조성하고, 참신한 창업아이디어와 우수한 사업모델 발굴 및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매년 열리고 있는 창업경진대회는 올해 1차 서류평가에 27개 팀이 지원

했으며, 2차 발표평가는 서면평가를 통과한 16개 팀이 5분 발표 및 5분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심사결과 영예의 전라북도지사상은 블루투스 사용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제어 가능한 스마트 스위치 아이디어를 제시한 UNL팀(전자공학과 문승배)이 차지했으며, 원광대학교 총장상은 20대 여성을 주 타겟으로 하는 브릿지 주얼리 아이디어를 제시한 에스프레아팀(김민수 외 4명)에게 돌아갔다.

또한 시상식에서는 최우수상 라이프프러셔팀, 우수상 에니모아스팀 외 1개 팀, 장려상 구석기팀 외 2개 팀에 대한 시상도 이루어졌다.

백현기 원광대 창업지원단장은 "경진대회를 통해 발굴된 아이템에 대해 밀도 있는 지원과 높은 수준의 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후속 지원하고, 타 사업과 연계과정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우수 창업아이템을 가진 예비창업자 발굴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익산=정양원기자

익산시, '안전점검의 날' 안전의식 강화캠페인 펼쳐

익산시는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지난 3일 오전 중앙체육공원에서 안전의식 강화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에는 한국전기안전공사 익산지사, 한국가스안전공사전북지역본부, (주)전북에너지서비스, 대한적십자사 익산지사, 익산보가스협회, 민간예찰단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2017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기간 중 가을철 지역추세기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행동요령 등 각종 유형별 안전수칙 홍보해 시민들의 안전의식 향상에 기여했다.

캠페인 이후에는 전기안전공사 익산지사가 망성면의 재난취약 22세대를 방문해 안전차단기, 콘센트, 전등 시설 등을 점검하고, 미약한 부분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했다.

시는 전기안전공사 익산지사의 협조를 받아 올해 익산시 읍·면·동 재난취약 100세대의 안전점검을 계획하고, 9월 말 현재까지 78세대를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 "안전한 익산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정양원기자

이리모현초 범죄예방 담당 벽화그리기 진행

법무부 군산권법지원센터가 추진하는 범죄예방 기획사업 대상지에 이리모현초등학교가 선정돼 지난 4일 학교 담장 벽화그리기가 진행됐다.

이번 벽화 그리기는 특히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과 주민들 통행에 불안감이 있어 개선방안을 모색하던 모현동 행정복지센터와 범죄예방 효과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을 구상하던 군산권법지원센터가 인연이 돼 함께 추진했다.

지난달 28일 담장 청소 시작으로 4일에는 도안 색깔하기를 끝으로 9일간 작업을 마친 학교 담장은 동물그림들이 자리를 메우며 친근하고 동심이 느껴지는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대로변 쪽이 아닌 주택가와 인접해 외지고 어두웠던 100미터가 넘는 학교 담장은 환하고 예쁘게 탈바꿈해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거리로 조성됐다.

이번 벽화 그리기에는 모현동 희망샘봉사단, 원광대 벽화봉사 동아리, 원광보건대 간호학과 그린나래 동아리, 익산 희망연대 등 12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하고, 법사랑 군산·익산지역 연합회와 (주)노루케이트가 후원 동참했다.

/익산=정양원기자

군산시의회, 내실있는 행정사무 감사 추진 위해 시민제보 접수창구 오늘부터 운영

군산시의회(의장 박정희)가 2017 행정사무 감사를 앞두고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행정사무 감사를 추진하기 위해 시민제보 접수창구를 운영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시민제보 접수 기간은 6일부터 21일까지로 읍면동 10개소에 홍보용 플래카드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시민제보를 받습니다'를 붙이고 홍보에 들어갔다.

시의회는 오는 14일부터 9일간 열리는 행정사무 감사를 앞두고 그간 행정기관으로부터 주민들이 겪었

던 시정의 불합리한 사항 시민 생활 불편사항, 기타 제도개선 사항 등 군산시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접수하기로 했다.

제보된 내용은 2017년 행정사무 감사 자료로 활용되며 감사 종료 후 처리결과를 제보자에게 통보할 방침이다.

시민제보는 군산시의회 홈페이지 '군산시의회에 바란다'에 의견을 남기거나 전화(063-450-5840), 팩스(063-452-8156)를 이용하면 된다.

/군산=김판곤기자

서군산 주민편의 개선 '팔 걷어'

군산시, 도로개설 확장·생활 인프라 조성 사업 등

군산시가 서군산에서 진행 중인 주민정주여건 개선 사업의 현장을 찾아 '현장감부회의'를 개최했다.

서군산은 군산 내 다른 지역에 비해 복지 및 문화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해 주민들로부터 개선 요구를 받아왔던 곳으로, 최근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 생활 인프라 조성 사업 등의 주거환경 개선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도시 내 균형발전엔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시에서는 지난 3일 문동신 군산시장을 비롯한 국·소장, 관련 부서장 등 20여명과 함께 서군산 복합체육시설 예정 부지와 미성·열대지간 도로개설 현장사무소, 미성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이 지역 사업들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의견 공유의 시간을 가져 서군산 정주여건 개선사업의 진행에 힘을 실었다.

미성동 국제마을 입구에 위치한 서군산 복합체육시설 예정부지에서는 다목적체육관과 축구장, 실내수영장 조성

에 대한 사업계획을 청취하고,

이곳에 조성될 체육시설이 주민들의 여가선용과 체력증진장으로서의 활용뿐 아니라 각종 대회 유치와 축제가 함께 연계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어 교통문제 해소와 주민생활 편의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미성·열대지간 도로개설 사업의 진행상황, 개미공동체 새마을사업, 미성동 주민센터 신축, 폐지왕에너지화 시설과 해당 주민에 대한 편의시설 사업 계획 등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받고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문 시장은 현장회의를 통해 "그간 개발과정에서 다소 소외되었던 서군산 지역도 주민생활 편의를 위한 각종 사업이 한창 추진 중인 만큼 새로운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행정에서 더욱 노력할 것"을 담당부서에 주문했다.

/군산=김판곤기자

익산 도심지역 가로등 LED교체 지속 추진

익산시(시장 정현을)가 에너지절약과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심지역 노후가로등을 LED로 교체하고 있다.

시는 주요도로변에 설치된 9,300여개소 가로등 중 1,340개소(14%)를 지난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정비하고 LED로 교체 완료했다.

올해는 노후가로등 330개소가 LED로 교체됐다. 더불어 추경예산 2억원을 확보해 10~11월까지 2개 사업 230개

소에 LED교체 및 노후시설 정비를 추진 중이다. 이 정비사업으로 익산대로(평화사거리~원대사거리), 무왕로(원대사거리~공실운동장)구간의 노후가로등이 시민들이 우수한 에너지절약형 LED로 교체된다.

시 관계자는 "훼손되거나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가로등을 정비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지역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

/익산=정양원기자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나눔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적십자회비는
경주지진, 태풍 차바,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

응급 구호품 세트

금융기관

가상계좌

인터넷

전화

편의점

신용카드 포인트

QR코드

홈페이지 www.redcross.or.kr
정기후원-긴급지원 문의 1577-8179

홍보대사 안재욱